

# 한국 신학을 위한 인식론

-이데올로기 비판과 해석학의 문제를 중심으로-

양 명 수\*

한국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이란 기독교의 신에 대한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학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에서 기독교의 신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이 한국 신학의 과제일 것이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미 한국 신학이란 말은 토착화 신학(윤성범) 쪽에서 사용하기도 했고, 민중 신학(안병무) 쪽에서도 사용했다.

우리는, 한국 신학을 정립하려면 무엇보다도 인식론의 물음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진리 이해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민중 신학 쪽에서는 대체로 이데올로기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 신학을 전개할 가능성이 생긴다.<sup>1)</sup>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끌어들어서 한국 민중의 정치 경제적 억압을 드러내고, 진리 인식의 당파성을 주장하기

---

\* 梁明洙.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1) 안병무 이후 김창락 교수나 민중신학 2세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강원돈의 『물의 신학』(한울, 1992)은 본격적으로 이데올로기 비판을 민중신학의 인식론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때문이다. 이데올로기 비판은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것인데, 진리에 대한 허위의식은 결국 인식론의 문제다. 토착화 신학 쪽에서는 대체로 해석학의 인식론을 가지고 한국 신학을 전개할 가능성이 생긴다.<sup>2)</sup> 이데올로기 비판이 계급적 지배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사회과학 쪽에서의 인식론이라면, 해석학은 이해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묻는 인문학 쪽의 인식론이다. 이 문제는 前理解의 문제와 얽힌다. 다른 전통에서 만들어진 텍스트는 그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문화에서 형성된 전이해를 통해 이해된다는 것이다. 전이해 문제는 이미 하이데거의 존재론에서 제기되었고, 신학에서는 블트만이 끌어와서 유명한 논문 「해석학의 문제」를 썼으며, 가다머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충실히 계승하여 우리나라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화전통의 전이해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는 이 글에서 대체로 이데올로기 비판과 해석학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국 신학을 위한 인식론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sup>3)</sup> 그 두 가지 관점은 모두 서양의 철학과 신학에서 발전한 것인데, 좀더 참신한 우리 나름의 방법론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필요하리라고 본다. 한국 신학이란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할 말을 하게 하는 신학’이란 명제를 걸고, 그런 작업을 전개하려고 한다.

그런데 인식론의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신론의 문제를 짚고

2) 윤성범의 『한국적 신학』 이후에 변선훈 교수나 그 이후의 토착화 신학자들은 대개 방법론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가다머의 해석학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여기서 해석학이라고 할 때는 사회과학적 이데올로기 비판이 아닌, 인문학적인 인식론인 해석학을 가리킨다. 종교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신학을 마련하고자 하는 김경재 교수는 한국 신학이 해석학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김경재, 『해석학과 종교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97 참고.

3) 이 글에서 우리는 민중신학이나 토착화 신학에 대해 평가하고 논하기보다는, 한국 신학을 새롭게 정의해 보고 방법론을 모색하려고 한다. 그리고 민중신학이나 토착화 신학의 의미를 그러한 방법론에 따라 조금 언급하는 선에서 그치려고 한다.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신론이 개방적이지 않으면 방법론 또는 인식론을 논의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원래 방법론이란 폐쇄적인 존재론에 바탕을 둔 신론에 대해 저항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진리 인식에 인간의 주체적인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유신론에 바탕을 둔 계시 인식론으로서는 한국 신학을 말할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 또는 하이데거처럼 이해의 문제를 존재론의 문제로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도 한국 신학의 가능성이 생기지 않는다. 신학에 철학을 끌어들인다면 어느 정도 존재론적인 사고가 필요하겠지만, 방법론을 허용하지 않는 이해의 존재론에서는 이해하는 주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신학을 말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 I. 인식론을 위한 신론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얘기이다. 그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없이 있지 않고 사람을 위하기로 한 분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위함을 받는 존재다. 기독교 신학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지만 사람을 위해 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방식인 인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다.

하이데거는 진리 이해를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말했지만, 신학에서 볼 때 인간 이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인간 이해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해하면서 존재한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인간 쪽에 쏠림으로써만 존재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포이에르바하가 말한 것과 다른 각도에서 신학은 인간학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에 쏠린 인간을 전제로 ‘이해’를 인식론의 문제가 아니라 존

재론의 문제로 풀었지만, 신학에서 볼 때 이해는 사람에게 쏠린 하나님 때문에 인간론 또는 인식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서양에서 발전한 존재론은 기독교의 신을 표현하는 틀로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지만, 기독교의 신은 존재론에 흡수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거리두기에서 생기는 방법론의 가능성이 생기고, 그 때문에 한국 신학을 말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원초적 귀속을 말하지만 꼭 존재론을 요청하지는 않는다. 사람에게 쏠린 하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다. 사람을 위하되, 대하면서 위한다. 그것이 사랑의 의미다. 베풀기만 하지 않고 대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향을 입는다. 그리고 사람의 고통을 같이 겪는다. 영향을 입어서는 안 되고, 겪어서는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사람을 대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당하기도 하고 겪기도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수난이다. 사람이 맞먹을 수도 있는 위험 곧 휴머니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하시기로 했다. 거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위기는 사람을 대하면서 위하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위기다. 사랑은 대하면서 위한다. 하나님은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으로 위하시기로 했다. 대하지 않고 위하는 것은 절대 지배체제를 만들고 받드는 종교성일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면서 위하는 분으로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모든 형이상학을 넘어서고, 존재론을 넘어선다.<sup>4)</sup>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하므로 존재한다고 했다. 존재의 근거를 생각에서 찾으므로 사람을 세상의 주인이요 주체로 세웠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존재한다. 사람과 함께 있기로 하신 하

4) 신을 존재론과 정반대로 말하는 학자로는 레비나스(E. Levinas), 마리옹(J.L. Marion) 등이 있다. 미국의 과정신학도 같은 논리를 펴다.

나님, 사람이 맞먹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신의 죽음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세상의 주인이요 주체로 세운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어 가신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되어 가신다는 생각은 종교개혁자들의 십자가 신학에서 이미 보인다. 마르틴 루터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나는 내가 될 나이라(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로 번역하고 있다. 그가 로마서에서 사람이 얻을 영광을 주인됨(Herrlichkeit)으로 번역한 것도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된다. 사람이 주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 가신다. 하나님이 타자성을 겪기 때문이다. 절대 곧 지배관계에서는 자기가 타자성을 모른다. 그러나 상대하는 관계에서는 낮선 자기를 겪으며 내가 된다. 상대방 때문이다. 하나님으로서는 사람 때문이다. 사람은 단순히 현존재(Dasein)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자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타자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타자성만 가지고는 한국 신학의 가능성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낮선 하나님을 겪는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되어 간다. 사람 때문에 그러시기로 했다. 사람 ‘때문에’라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제일 원인으로서의 하나님도 반대하지만, 하나님의 되어 가심에 사람이 원인이 된다는 얘기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이 되시는 데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됨’으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곧 하나님의 ‘됨됨이’는 하나님‘됨’에 있다. 사람 때문이다. 사람과 상대하기로 한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 ‘때문’은 ‘말미암음’이다. 말미암음은 원인과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대하는 데서 오는 주체성의 문제다. 도대체 말미암음이 사람에게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사적 성격을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없다. 하나님도 일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떨어짐(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곧 낯선 하나님을 겪는 문제이고, 그 문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다.

자유란 스스로 말미암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권자 또는 주체를 가리킨다. ‘스스로 말미암는’ 인간의 자유는 은총이다. 인간의 자유 또는 인간의 주체성은, 칸트의 생각과 달리, 내가 명령하고 내가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율로서의 자유에서 생기지 않고 관계에서 생긴다. 남과 상대하는 데서 생긴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자유다. 사람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겪지 않고,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더 이상 되어 가지 않고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것은 종말 사건이다. 하나님이 되어 가기를 마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때에 사람도 사람이 된다. 또는 사람이 사람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국민주권은 같이 간다. 그리고 그 ‘이다’는 ‘됨’을 가리킨다. 하나님 됨으로 하나님이기도 한 사랑의 하나님의 은총이다.

## II. 할 말을 하도록 해주는 신학 : 이데올로기 비판과 한국신학

한국 신학이란 ‘한국 사람이 할 말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신학이다.’ 한국 사람의 말 길을 열어 주는 신학이 한국 신학이다.

위의 정의에서 ‘한국 사람’이란 상황을 뜻한다. 한국 신학이라면 한국에 맞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한국의 상황에 맞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국 사람’의 말 길을 열어 주는 신학이라고 했을 때 그런 상황적 특수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란 그리 간단한 용어가 아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황이란 한국의 상황에 처한 한국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다. 흔히 상황이라면 정치, 사회, 경제를 비롯한 생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상황이란 그러한 생활 환경에서 생겨나는 고통의 소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상황 적합성이란 그러한 고통의 소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의 문제다. 또는 그러한 고통의 소리로부터 신학을 하는 문제다.

고통의 소리는 아직 말로 되지 못한 소리다. 탄식이요 울부짖음이다. 그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살려고 하는 생명력에서 나오는 거친 몸소리다. 할 말이 많은데 아직 말을 하지 못한 말이다. 신학은 그 소리가 말이 되도록 길을 열어 주는 일을 한다. 말문이 트이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로 구성된 신학은 이미 한국 사람이 갖고 있던 고통의 소리가 말이 되도록 길을 열어 준다. 말이 말의 문을 여는 것이다. 신학이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은 한국 사람에게 있다. 신학이 접하는 상황이란 말로 된 상황이다. 이 땅의 언어에 접하면서 한국 신학이 탄생하는 것이지, 언어 없는 상황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신학이 부딪히는 언어적 상황이란 ‘할 말’이다. 할 말은 말 이

전의 말이다. 그러나 이미 언어성을 띠고 있다. 이것이 신학이 처한 해석학적인 상황이다. 만일 한국 신학을 하기 위해 한국의 사상과 문헌을 빌어 신학을 할 때도, 역시 그러한 문헌 뒤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할 말'을 찾아 그 말의 길을 열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미 사상이란 것이 말 길을 열어 준 것이니까, 그 경우에 한국 신학을 한다는 것은 그 길을 따라 말 길을 열어 줄 것인가. 아니면 성서에서 열어 놓은 말 길과 한국 사상의 말 길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

신학은 말을 이끌어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찾아가는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서를 기반으로 한 교리적인 가르침은, 한국인들의 주체적 참여 없이 답을 내려주는 것이기보다는 해석학적 상황 속에서 한국인의 말을 끌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된다. 그러한 해석학적 주체성의 장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한국 신학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구원의 길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이 하지만 사람이 한다. 말은 이미 다 얘기된 것이 아니다. 성서는 말을 열어 주는 말이요, 성서에 바탕을 둔 전통 교리도 굳어진 말이 아니라 말문을 트게 해 주는 말이어야 한다.

이 땅의 억압에서 생긴 고통의 소리가 있다. 일종의 느낌인 그 소리로 하여금 몸을 입어 앞뒤가 맞는 말이 되게끔 이끌어 주는 것이 신학이다. 느낌이나 소리가 말이 될 때, 이 땅의 백성은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된다. 말을 하는 자가 권력자다. 주권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주체적으로 살게 한다. 그것이 신학이 열어 줄 구원의 길이다. 신학이란 사람에게 무슨 구원을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사는 것처럼 살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 신학이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바램을 살려 주는 신학이다. 구원이란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요,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의 근원은 할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사람에는 근원적인 억압이 있고, 그 뿌리깊은 억압에서 할 말이 뭉쳐나고, 그 할 말을 하면서 살아야 사는 것처럼 사는 길이 트인다. 사람은 억압이 많아서 '할 말'이 많고 많이 눌러 있는 사람일수록 할 말이 많다. 분노는 폭력으로 나오기 전에 '할 말' 곧 말 이전의 말 모양을 하고 있다. 할 말을 '하는 말'<sup>5)</sup>은 사는 것처럼 사는 길을 트는 것이요,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그 자체다. 할 말을 하지 못할 때 폭력이 된다. 폭력적인 말도 있지만, 그것은 말 같지 않은 말이요, 그래도 아직 말하고 있는 한, 말이 통할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할 말을 하는 말은 말이 통할 희망이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 단지 경제적 생산을 위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완전한 관계 회복에 대한 희망 곧 사랑에 대한 희망이다. 구원은 말의 문제다. '하는 말'이란 이것저것 떠드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또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상대하는 데서 생기는 충만한 언어성을 가리킨다. 충만한 말은 '말없음'이 될 수도 있다. 억압이 없으면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없음은 말 이전이 아니라 말의 충만이다. '하는 말'은 '한 말'이 아니다.

다시 말해 보자. 언어란 할 말을 하는 것이다. 억압이 언어 이전의 언어인 할 말을 낳고, 그 할 말이 밖으로 나온 것이 말이다. 억압은 무의미를 낳는다. 할 말은 무의미를 극복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데서 생긴다. 할 말이 말이 되면서 의미를 찾는다. 말의 뜻은 삶의 뜻을 찾아 나선다. 그래서 말은 단순히 언어학적이고 기호학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이고 종교적인 사건이다. 물론 기술과학 언어도 있지만 그것은

---

5) '하는 말(the Saying)'과 '한 말(the Said)'이라는 용어 자체는 레비나스에게서 빌어 온 것이다. E. Levinas, *Totalite et Infini*, The Hague : Martinus Nijhoff, 1971 참조. '한 말'이란 굳어진 말,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화된 말이다. '하는 말'은 인간 관계성이 살아있는 말, 생생한 말이다.

기호에 가까울 뿐 말다운 말이 아니다. 물론 그런 언어도 존재론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 이바지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단순히 기호가 아니라 언어요 말이다.

한국 신학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할 말을 하도록 해 주는 하나님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학에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는 경계선 상의 신학이라야 한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유신론에서는 하나님만 말하고 사람은 말을 듣기 때문이다. 말의 본질이 듣는 데 있지, 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할 말을 막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종교가 이바지했다.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 말하지, 평등한 인간 관계의 회복에는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이 종교다. 그러나 이제 무신의 위기가 없이 한국 신학은 없다. 하나님의 뜻만 찾는 신학을 사람의 뜻을 향해 경계선으로 몰아야 비로소 이 땅의 사람들의 구원의 갈망에서 나온 신학이 될 수 있다.

할 말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은 정치 경제적인 억압에서 이 땅의 백성을 해방할 것이다. 말 잘 듣는 것을 미덕으로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한다. 이것은 신학이 인식론에서 나온 이데올로기 비판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신학과 인간학의 경계선 상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할 말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은 그 언어성 때문에 이 땅의 상징 체계에 따른 신학의 길을 연다. 억압은 보편적이고 그래서 할 말도 보편적이지만 할 말을 하는 말은 민족마다 제각기 다른 상징체계를 가질 수 있다.

억압은 두 차원에서 생긴다. 하나는 정치 경제적인 억압이다. 인간의 물적 조건에 있어서의 착취와 억압은 좌절과 무의미를 낳고, 그 무의미를 극복하려는 할 말을 낳는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의식 형성은 물적 조건의 형성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물적 조건의 생산과 언어 탄생을 같이 본다. 마르크스가 말과 의식의 탄생을 물적 조건의 생산

과 맞물린 것으로 보았다면,<sup>6)</sup> 우리는 물적 조건의 억압과 언어 탄생이 맞물려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억압에서 할 말이 생긴다. 언어는 언어 이전의 언어 곧 할 말의 형태로 시작된다. 그리고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할 말이 무의식을 이룬다. 프로이트에게 있어서도 무의식은 표상으로서 이미 언어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sup>7)</sup>

할 말은 것처럼 정치 경제적인 차원의 억압에서 생긴다. 그래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할 말이 많다. 모든 사람이 할 말이 많지만 역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사람에게 눌린 사람들이 할 말이 많다. 한국 신학은 그들로 하여금 할 말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할 말을 하는 말은 그러한 물적 조건의 개선을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철저한 이데올로기 비판을 의미한다. 은혜롭게 넘어가지 말고, 일부러 잘못 아는 것을 비판하여 기득권층의 음모를 가려내야 한다. 종교는 많은 것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게 하지만, 따져 보아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 안에서 가능하려면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져야 가능하다. 하나님의 타자인 인간에서 가능하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자로서의 인간이다.<sup>8)</sup> 거기서, 떨어져서 생기는 방법론적인 사고, 인식론적인 사

6) K. Marx, 『독일 이데올로기』, 두레, 1989, 79쪽 이하.

7)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언어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은 라캉 말고도 리쾨르의 해석학이 있다. P. Ricoeur, 『해석의 갈등』, 양명수 옮김, 아카넷, 2001 그리고 *De l'interprétation*, Paris, 1968 참조.

8)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타자로 얘기하는 것은, 바르트 신학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헤겔과도 달리 가려는 것이다. 바르트에게서는 오직 하나님이 사람의 타자다. 그리고 헤겔에게서는 절대정신으로서의 신이 타자성을 겪는데, 그 타자는 역사요 역사를 일구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은 그 타자에게서 자기를 본다. 결국 신이 사람에게서 신을 보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신이 된다. 우리는 한국 신학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을 주체 대 주체로 세우려고

고가 열린다. 영성은 사회과학을 수용한다. 아니, 영성이 사회과학을 낳는다. 하나님과 마주해서 사람은 억압자에 맞서 할 말을 한다. 물론 알튀세르는 자연과학에서 나온 객관적 실증주의를 부르주아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프롤레타리아 편에 서야 참된 앎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 말이 맞다. 어느 편에 서야 제대로 보이지만, 프롤레타리아 편에 서기 전에 먼저 신과 떨어져야 한다. 서양 사상의 역사를 볼 때 탈종교에서 생긴 인식론과 방법론의 발전이 없었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과학적 인식도 없었을 것이다.

할 말은 알지 못할 억압자에 '맞서' 생긴다. 그래서 할 말은 말로 되려는 에너지다. 그러나 할 말을 하는 말은 억압자에 '마주해서' 나온다. 사람을 마주하는 한, 하는 말은 폭력으로 가지 않는다. 할 말의 맞서는 힘이 힘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한다. 말이 힘을 갖고 운동력을 갖는다. 결국 말이 희망이다. 사람을 상대하는 하나님<sup>9)</sup>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치 경제적인 억압에서 생긴 할 말을 하도록 한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하는 말'이면서 사람이 말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냥 베풀지 않고 말하도록 해서 물질 조건을 개혁하게 한다.

우리는 민중 신학에서 한국 신학의 한 모델을 본다. 민중 신학은 한국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이룩한 한국 신학이다. 그것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할 말을 하도록 말문을 터 주는 역할을 했다. 사회과학과 이데올로기 비판을 끌어들이며 방법론으로 삼고, 민중의 고통의 소리를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래서 서남동은 성서를 경전이 아니라 전거로 삼는 식의 얘기까지 했고,<sup>10)</sup> 민중 메시아론까지 나왔다.

---

한다. 상대하시는 하나님이란 개념이 그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전적 타자지만, 사람 또한 하나님의 타자다.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이 겪을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자다.

9) 양명수, 『근대성과 종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272쪽 이하.

10)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한길사, 1986.

민중 메시아론은 결국 메시아의 집단성과 민중의 주체성이 연결된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한국 신학을 정의하면서 한국인의 고통의 소리라고 할 때, 민중 신학은 주로 정치 경제적인 억압에서 생긴 할 말을 하도록 이끈 신학이다. 원래 민중 신학은 서구의 이데올로기 비판이나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출발했으므로 해석학적인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정치신학이라고 할지언정 문화신학의 성질은 띠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서 전거론이나 민중 메시아론까지 가면 민중 신학이 단순히 이데올로기 비판에 머물지 않고, 민중의 소리의 해석학적 차원까지 대두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sup>11)</sup>

### Ⅲ. 할 말을 하도록 해 주는 신학 :

#### 한국 신학과 해석학의 문제

정치 경제적인 억압 이외에 우리는 존재와의 관계 단절에서 생기는 억압을 생각할 수 있다. 강자 약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처한 억압적 상황이다. 근원적인 무의미는 거기서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신학에서는 그 점을 말해야 한다. 일상성을 지배하는 무의미와 허무는 존재 또는 존재의 근거와의 관계 단절에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무의미 극복은 종교의 문제다. 종교란 결국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다.

성서는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얘기에서 역사를 시작하고, 프로이트는 인간의 공격 본능을 말했다. 그는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사람의 공격 본능은 사유재산이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sup>12)</sup> 특별히 누르는 사람이 없어도 사람은 불안하다. 그것은 정치 경제적인 억

11) 요즘 젊은 민중신학자들은 해석학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다.

12) S. Freud, 『문명 속의 불만』, 김석희 옮김, 열린 책들, 1997.

압 이전의 억압이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실존의 불안은 존재와의 관계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기서 할 말이 생긴다. ‘할 말’은 존재와 관계가 단절된 데서 생긴 무의미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언어는 억압이라는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살려고 하는 데서 생긴다. 마치 어거스틴이 인간의 시간 체험을 인간이 분열된 속에서 자기를 통합하려는 체험으로 보는 것과 같다. 할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생긴다. 억압이 없으면 말도 필요 없다. 억압이 있고, 그 억압을 극복하려는 것이 말이다.

관계 회복은 곧 화해다. 프로이트는 자기와의 화해를 구원으로 본다. 그리고 거기에는 말이 따른다. 나에게 말하면서 자기를 용납한다. 자기와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말은 화해와 구원을 지향한다. 윤리학자는 남과의 화해를 말하며, 성서는 아주 근원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한다. 그것도 말의 사건이다. 화해란 이제부터 ‘말이 통합’을 가리킨다. 하나님과의 화해도 마찬가지다. 무슨 좋은 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말이 통해 주체로 살 수 있음을 뜻한다. 하나님과 주체 대 주체의 관계에 섬을 뜻한다. 그것을 가리켜 바울은 자유인이라고도 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어쨌든 화해를 향한 희망으로 말이 나오고 그 말이 문화와 역사를 형성한다. 인류의 역사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말로 한 것들의 축적이므로 단순히 사실 기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역사요 희망의 역사다.

그런데 존재와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언어는 상징 언어다. 종교의 시대에는 주로 존재와의 관계 회복을 말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했다. 그래서 상징언어가 발전했다. 그러나 근대 들어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이해 관계의 충돌을 본격적으로 조절하면서부터 날카롭고 정확한 언어가 발전했다. 과학의 언어다.

그러나 상징 언어는 해석의 여지가 많다. 성서는 그 자체로 할 말이요, 성서를 통해 하나님이 할 말을 한다. 하나님은 억압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사람 때문에 꺾어서 할 말이 생긴다. 성서를 통해 하나님도 할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은 ‘한 말’이 아니라 언제나 ‘하는 말’이다. 그래서 살아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것처럼 ‘하는 말’인 하나님 앞에서 사람도 할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해 버린 ‘한 말’로 전락하면 사람이 할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 하면서 사람도 언어가 터진다. 할 말이 말로 터져나온다. 하나님이 말 할 때, 사람이 참으로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참으로서 참 말이요, 참 말로서 사랑이시다. 그때에 할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상징 언어요 시 언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는 상징성을 떨 수밖에 없다. 말을 했지만 말로 다 되지 않는 것을 말로 한 것이다. 사회 경제적인 차원의 정의를 위해서는 분명한 말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사랑이나 관계 회복이나 존재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언어는 말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뜻이 빈곤해서가 아니라 뜻이 넘쳐서다. 인생의 애매 모호함과 악의 신비를 말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언어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선 지경을 표현하는 언어는 말에 가두어지지 않는 넘치는 뜻 때문에 상징이 된다. 그래도 말로 하는 것은 무의미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삶의 뜻이 말의 뜻에 가두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그것은 할 말을 한 것이다. 상징 언어야말로 ‘하는 말’로서 누구나 거기서 쉼을 얻고 자기 나름의 의미를 찾기 때문이다. 의미는 어차피 자기 나름대로 찾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깃들여 자기 나름의 의미를 찾아 자기 나름의 말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상징 언어다. 그래서 상징 언어는 ‘하는 말’로서 말을 낳는다. 해석을 통해 각자의 말을 낳는다.

그러한 상징 언어는, 다 말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

여금 말하게 하는 언어다. 그래서 하는 말로서 언어성이 충만하다. 상징의 겹뜻을 따라 사람이 자기 나름의 삶의 뜻을 찾는 작업이 해석이다. 뜻이 정해져 있으면 나름의 뜻을 찾지 못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징의 다의성을 풀 때, 이데올로기 비판도 들어와야 한다. 이데올로기 비판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지만 이데올로기 비판을 빠뜨려서도 안 된다. 그래서 할 말을 하는 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의 언어는 재고 따지고 투쟁하는 언어다.

그러나 상징 언어는 기본적으로 그리움의 언어다. 관계 회복을 향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할 말을 하는 말의 뿌리는 그런 그리움이지만, 정치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은 늘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사람은 누구나 존재와의 관계 단절 때문에 할 말이 많고, 할 말을 다 못하고 가지만, 역시 정치경제적으로 눌린 사람들이 할 말이 많다.

할 말은 무의미를 극복하려는 데서 생기고, 그것이 억압에 맞서는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성을 띠는 것은 존재의 언어성<sup>13)</sup> 때문이다. 먼저 존재가 또는 신이 말을 건다. 그래서 할 말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말 이전의 말은 선행 은총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할 말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다. 그러나 할 말을 하는 말은 어떤가? 과학 언어는 보편적이다. 우리는 조금 전에 종교적이고 존재론적인 언어를 해석할 때 비판 이성의 역할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 언어는 원래 탈종교에서 생긴 것이다. 그것은 어떤 상징을 비신화화하면서 생긴 것이므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지 않는 언어로서 보편적이다. 그래서 오늘날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언어는 세상을 통일하고 있다. 그것은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세상 여러 민족의 삶의 모습을 비슷비슷하게 만들고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것은 인간 해방을

13) '존재의 언어성'이란 하이데거의 용어이기도 하지만, 성서의 사상이기도 하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요한 1서 1장). 하나님은 말씀이다.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과학 언어는 해석의 순환이 없기 때문에 ‘한 말’로서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 이데올로기 비판에서 시작한 과학 언어가 다시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투쟁하는 데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띠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한 말’은 사람의 진정한 교동을 막고 새로운 세상을 막는다. 과학 언어는 그것만으로는 삭막하고 획일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그칠 수도 있다. 정의의 목적은 사랑에 있다.<sup>14)</sup> 사랑하자고 정의의 투쟁을 하는 것이다. 삶의 의미는 정의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 과학 언어도 할 말을 하는 말이지만, 존재와의 합일을 향해 할 말을 하는 말에 봉사해야 한다. 과학은 떨어지는 자유를 확보했고, 인류는 이제 다시 붙는 데서 생기는 자유를 향해야 한다.<sup>15)</sup> 그것은 과학 이상의 것이며 이데올로기 비판 이상의 것이다. 과학은 거기에 봉사하면 된다. 과학 언어는 비신화화를 통해 상징을 사실로 믿지 않고 해석하도록 했다.

역압이 보편적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선행 은총도 보편적이므로, 할 말을 하는 인문학의 언어도 보편적인 감동을 줄 수 있다. 사회과학의 언어는 존재론 차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비록 서양에서 나왔어도 보편적인 설득력을 지닌다. 인문학 언어는 종교나 존재론 차원과 연관이 있으면서도 보편적일 수 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베르그송이나 칸트나 헤겔의 책을 읽으며 공감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철학 언어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언어와 달리 상상력을 발동해서 새로운 말을 계속 낳기도 한다. 상징 언어가 아닌 개념 언어이면서도 역시 상징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종교 체험의 언어들도 보편성을 떨 수 있다. 말하자면 성서

14) 과학 언어는 인간관계를 합리화하고 중립적인 관계로 만들어 이해관계의 충돌을 정의롭게 해결하는 데 이바지했다. 양명수, 앞의 책, 2001, 19쪽 이하 참조.

15) 양명수, 위의 책, 97쪽 이하.

와 같은 새로운 종교 경험의 텍스트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다.

아마 그런 문제를 하이데거 식으로 보자면 전이해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이데거로서는 이해가 해석의 결과가 아니다. 해석이란 이미 이해한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일 뿐이다.<sup>16)</sup> 그러므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전이해는 사람이면 누구나 맺고 있는 존재와의 관계다. 그 관계가 이해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보편적이다. 그 같은 보편적인 전이해 때문에 사람의 말은 서로 통한다. 지극히 상징성을 띠고 있는 종교 체험의 언어들도 서로 통한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말이 통한다. 번역이 가능하고, 문화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로운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된다.

그런데 그 전이해는 물음의 형태로 있다<sup>17)</sup>. 전이해의 이해는 이미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답을 얻기 위해 열려 있는 이해다. 이미 알지 못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아는 앎은 이해지만, 아직 알지 못한 것이요 앎을 구하는 앎이다. 그런 점에서 물음이다. 성서 같은 종교 언어는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온다. 성서를 통해 말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말하신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미 묻고 있었던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말이다. 해석의 순환은 거기서 생긴다. '이미 알고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때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물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다. 묻는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알지 못하고 물을 수 없고 아는 만큼 묻는다. 그리고 묻는 만

16) 하이데거의 전이해에 대해서는 양명수, 「해석학적 순환에 대하여」, 『애산학보』 26, 애산학회, 2002 참조.

17) R. Bultmann 저, 「해석학의 문제」, 『학문과 실존 I』, 허혁 옮김, 성광문화사, 1980, 300쪽.

큼 아는가?

기본적으로 사람은 존재와의 관계에서 이해를 갖고 있다. 이미 뜻이 있고, 그 뜻을 향해 사람은 물음을 갖고 있다. 그만큼 전이해를 가지고 있다. 존재의 빛에서 나온 이미 있는 뜻 때문에 사람은 이해한다. 의미는 존재론적인 문제다. 존재를 향해 섰을 때 의미가 발생한다. 그리고 사람은 이미 존재 안에 있다. 전이해가 발생하며, 그것은 사람에게 보편적이다. 그러나 그 전 이해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묻는다. 이미 있는 뜻을 자기 것으로 잡기 위해 말한다. 그래야 의미를 찾는다. 의미는 이미 '있다'. 그러나 내가 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미 존재의 은혜로 의미를 잡고 있지만 내 것으로 잡아야 한다.

전이해의 구조로만은 아직 무의미다. 그것은 이해이기 때문에 언어성을 띠고 있지만 아직 할 말이다. 그래서 말한다. 말의 뜻은 이미 있는 존재의 뜻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말은 기본적으로 물음에서 나온 말이다. 물음에서 나온 물음이다. 앎을 구하는 앎인 전이해에서 나온 물음이기 때문이다. 전이해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앎이요, 물음으로서 은총이다. 그러나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묻는 물음은 주체적인 것이다. 물론 은총 안에서의 주체이지만 말이다. 종교 언어에서 사람은 답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물음의 주체다. 규정하는 언어이기보다는 물음의 언어다. 할 말을 하는 말이지만, 여전히 할 말이다. 그러나 하는 말로서 한 가지 뜻을 넘어 겹뜻을 통해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그래서 상징 언어다. 그것은 답을 정해 준 언어이기보다는 답을 찾는 언어요, 이미 말로 했다는 점에서 그 문화권의 물음의 양식이 들어 있지만, 여전히 물음이요 할 말이라는 점에서 개방적이다. 신화나 상징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개방적이다.

이미 있는 뜻의 빛을 받아 말한 것이므로 어느 경전도 서로 통할 수 있다. 전이해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경전의 진리를 인류 전체가 받아

들일 수도 있다. 선교는 그래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도 그래서 가능할 것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이미 알고 있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 IV. 물음의 방식 곧 전통으로서의 전이해

그러나 해석의 순환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 위에서 우리는 존재의 언어성에 대해 말했다. 그런데 사람은 존재의 언어 또는 말 씀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해 놓은 말들을 통해 만난다.

또 다른 전이해가 있을 수 있다. 할 말을 하는 말로서의 종교 경전은 답이라기보다는 물음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전히 할 말이요, 한 말이 아닌 하는 말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물음에는 방식이 있다. 묻는 방식이 있다. 그 문화권에서 생겨난 존재 이해의 방식이 있다. 가다머가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전통 안에 있다는 것은, 축적되어 온 물음의 방식에 따라서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해의 한계가 있다. 또는 존재의 계시가 전통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존재를 직접 이해하지 않고 텍스트를 통해 이해한다. 그런데 텍스트에는 그 문화권의 물음의 방식이 들어 있다. 것처럼 묻는 방식을 축적해 왔다는 점에서 전통은 위대한 것이다. 또한 묻는 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문화권에서 나온 종교 경전은 단순히 물음이 아니라 갈래를 가진 물음이다. 그만큼 답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경전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다. 그러나 그 답은 그 문화권에서 나온 물음에 따른 답이다. 그러므로 답은 여전히 다른 방식의 존재 이해를 향해 개방되어 있다. 새로운 물음

을 안고 있는 답이다. 답이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여전히 물음이다. 그 점에서 다른 종교 경험의 텍스트를 향해 개방되어 있다.

여하튼 전통을 통해 형성된 물음의 방식은 이해를 위한 전이해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겹의 전이해를 보게 된다. 문화를 넘어 존재의 은총으로 생긴 보편적인 전이해가 있고, 각 문화 전통에서 형성된 전이해가 있다. 성서의 말씀도 그러한 전이해를 거쳐 이해된다. 성서를 통해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지만, 하나님은 묻지 않는 데 답하지는 않는다. 물론 하나님의 선행 은총은 할 말을 형성하는 데 작용한다. 할 말은 무의미를 극복하려는 사람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지만 은총이 선행한다. 그리고 할 말은 물음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할 말을 하는 말, 다시 말해서 물음을 묻는 말은 인간의 주체적 행위다. 물론 물음을 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민족마다 나뉠대로의 문화 다시 말해서 나뉠대로의 물음의 방식을 창조한다. 하나님이 하지만 각 민족이 한다. 보편적 전이해는 하나님과 각 사람의 문제지만, 전통이 형성하는 전이해는 하나님과 각 민족의 문제다. 사람은 자기가 속한 민족 문화의 전이해를 따라 존재를 이해한다. 존재는 그러한 전이해의 길을 따라 계시된다. ‘이미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다.’ 이때 ‘이미 알’ 곧 전이해는 각 민족이 쌓아 온 이해방식 곧 물음의 방식이다. 진리 이해에 방식과 방법의 문제가 들어온다. 존재는 단순히 존재론적인 전이해뿐 아니라 방법론적인 전이해를 따라 이해된다. 하나님이 방법론적인 전이해에 의해 제한되며 계시된다.<sup>18)</sup> 거기서 한국 신학이

18) 이 문제도 사람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론과 연결되어 있다. 사람과 주체 대 주체의 관계에 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해석학적인 상황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는다. 물론 가다머의 해석학은 하이데거를 따라 존재에 인간이 귀속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학적인 관점이 약하다. 그렇게 되면 그의 해석학에는 이데올로기 비판이 들어갈 여지가 사라진다. 하버마스가 가다머를 비판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우리는, 할 말을 하게 해 주는 신학을 찾기 위해서는 해석학

가능하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한국의 상황에 맞는 신학이 된다. 여기서 상황이란 해석학적인 상황이다. 이해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전 이해가 신학이 고려할 상황이다.

그러면 다른 문화에서 생긴 종교 경전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를 들어 우리는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결국 우리의 전이해를 따라 이해하는가? 우리의 전이해라고 하면 유불선 삼교나 샤머니즘에서 생겨난 물음의 방식일 것이다. 성서를 번역한다는 것이 이미 복음을 우리 문화 속에 끌어들이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번역만으로 우리의 전 이해가 성서에 적용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성서를 번역할 때 우리의 전 이해가 성서의 의미를 그르치지 않도록 배려하며 번역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절을 구역에서는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고 번역했다가, 개역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로 번역했다. 성서의 전이해를 구성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사유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우리말로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전 이해에 거스르며 이해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성서의 시간관과 자연관 그리고 인간관과 세계관이 우리 민족의 전이해와 다르다. 우리의 전 이해를 건너뛰어서 앞서 말한 보편적인 전이해의 각도에서 문화 충격을 흡수하며 성서의 세계관과 인간관에 들어갈 수도 있다. 성서를 낳은 문화의 전이해에 맞추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의 전이해에 따라 성서를 이해하는 것을 성서는 허락하는가? 만일 우리의 전이해에 따라 성서를 이해하면 성서에서 무엇이 남는가? 그것을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까?

---

적 상황 못지않게 이데올로기 비판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우리가 말하는 상대하는 하나님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주체 대 주체의 관계에 서게 되어 두 가지 관점이 모두 살아난다. 물론 인간의 주체성은 은총이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사고를 흡수하며, 동시에 신학이 인간학으로 환원되는 것을 막는다.

성서는 우리의 전이해를 버릴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물음을 버리라고 할 수 있다. 물음이 잘못되었으니 물음을 바꾸라는 것이다. 우리는 성서에서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를 본다. 그것은 대개 물음이 잘못된 경우다. 물음은 답의 수준을 결정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묻는 만큼 안다. 아는 만큼 안다. 그러면 그렇게 아는 만큼 아는 데서 끝나는가?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 답하는데, 각 문화의 물음의 연장선에서 그 방식에 따라 답하시고 마는가? 묻지 않으면 답도 없다. 그러나 ‘이미 알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는 만큼 안다는 얘기는 아니다. 물음과 같은 수준에서 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답은 물음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올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은 물음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은 물음의 수준과 다른 방식으로 답할 때다.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어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마태 19 : 17)라고 했다. 선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이다. 이것은 복음이 당시 유대 문화의 전이해와도 다른 각도에서 전해지는 것임을 말해 준다. 성서는 우리에게 물음을 바꾸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 전통에서 지니고 있던 물음의 방식과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답이 주어질 수도 있다.

기독교 교리가 형성될 때도 마찬가지다. 헬레니즘 사회에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성서를 낳은 유대 문화와 다른 그리스 문화의 사고 방식이 교리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컸다. 성서를 당시 문화권에 설명하되 성서의 정신을 지키면서 비교적 사변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였던 어거스틴의 경우가 그렇다. 그가 성서의 정신을 지키고자 했을 때 강조한 것이 물음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악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마니키아주의자들에게 주장했다. 말하자면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자신의 전통을 통해 물려받은 전이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방식으로 물으라는 얘기다. 것처럼 성서는 문화적 전이해를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물으며 하나님의 답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것은 상당한 문화 충격일 수밖에 없다.

적어도 우리나라 개신교는 그런 문화 충격을 크게 겪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다. 근본주의적인 신학이 들어와 초창기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대부흥을 이루었다. 물론 최병헌이나 김교신이나 함석헌처럼 우리 문화의 배경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는 분들이 있었지만 민중들에게는 상황 적합성을 문제 삼지 않는 근본주의 신학이 잘 먹혀 들어갔다. 아마 구한말에 민중이 어려운 처지에 속했기 때문이리라. 내부의 오랜 세도정치와 외부의 침략으로 국운이 흔들리고 민중의 삶이 허덕일 당시, 어떤 사상도 설득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던 것 같다. 절망은 말의 상실 곧 '할 말'을 잃는 모습을 띤다. 물음을 잃었으므로 전통의 전이해를 버리고 새롭게 묻는 방식을 택하기가 비교적 쉬웠을지 모른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개신교는 이 땅에 존재했던 전이해를 거치지 않고 성서를 이해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물론 샤머니즘의 심성으로 성서를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종교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물음의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성서 앞에서 우리 전이해를 따라 성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상당히 의식적인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오랫동안 전이해로 존재했던 유교나 불교나 도교의 눈으로 성서를 해석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을 완화하는 신학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토착화 신학자들이 하는 작업이 그런 것일 게다.

다시 물어보자. 그러면 이제 한국신학은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할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할 말을 했던 말의 방식을 따라 성서를 이해해



야 하는가? 우리의 전 이해에 따라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어야 하는가? 성서는 그것을 허락하는가?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물었던 진지한 물음들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성서적 물음의 방식을 따라 가더라도 바로 그리 가지 말고 이 땅의 물음의 방식을 거쳐 성서적 물음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성서의 전이해에는 우리의 전이해와 양립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 두 개의 전이해가 서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하는 것일 경우가 많다. 그때에 비로소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할 말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성서의 전 이해를 따라 이해되기도 하지만 우리 전통의 전이해를 따라 이해되기도 한다. 앞에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신학은 인간학과 경계선 상의 신학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하지만 사람이 한다고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고 했다. 그런 신론에 바탕을 두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자. 성서의 전이해는 한국 문화 전통의 전이해와 경계선 상에 있다. 성서의 하나님은 유대 문화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말하시지만, 한국 문화전통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말하시기도 한다. 성서는 그것을 허락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서는 답이지만 물음으로서, 진리를 찾는 다른 물음에 대해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국 문화의 물음의 방식에 대한 답으로 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은, 유대 전통과 무관하게 이 땅의 철학적 사고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이 이 땅의 물음의 연장선에서 온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 타자성은 살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덮치는 방식으로 오지 않고, 우리 앞에서 우리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오지만, 물음과 답 사이에는 불연속이 있을 수 있다. 만일 그런 긴장이 없이 우리의 전이해를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끝내면 기독교의 흔적

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가다머의 지평융합이라는 말을 빌려 말하자면, 성서 이해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생긴 지평들의 융합의 결과이지, 하나의 지평의 연장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 EPISTEMOLOGY FOR KOREAN THEOLOGY

Korean Theology is Theology opening and leading the way Koreans say something to say. 'Saying something to say' is to try to overcome painful situation of life. Painful situation evokes something to say, language prior to language. And such a language character of human suffering wants to be language event in the world. It is in that way that signification of language is related to the meaning of life, which is the result of overcoming the oppression. That's why Saying something to say is liberation event.

Theological language is to open the way of human liberation by helping people's language event; helping, not making, because a language character of human suffering is already religious to the extent that it searches for the meaning of life. Religion is after all to give meaning of life. What is the 'Koreans' in our definition of Korean Theology? It is the situation where theology is done. And the situation is the hermeneutical one, because of precomprehension.

Precomprehension is comprehension already given according to tradition. It is in that sense that we can say, 'Without knowing, nobody knows'. Koreans have their own precomprehension due to their own tradition. But the precomprehension is kind of question rather than answer. It is a way of thinking. Tradition consists in accumulation of way of thinking or comprehending the Being and the world. Each people has his own way of comprehension which makes his precomprehension. The world is viewed from the point of precomprehensive view. And it is true of revelation. The revelation of God is limited by each peoples's cultural precomprehension. God's revelation is answer to each peoples's question; no question, no answer; no precomprehension, no

revelation. Therefore, our precomprehension is necessary for the revelation of God itself. And, as question, precomprehension is open to the other way of thinking. That's why Koreans can find their way of salvation in Bible. For Koreans, the Bible is interpreted firstly from the our own soteriological point of view, heritage of our tradition. It can be called somehow the autonomous indigenization. But the conscious efforts of respecting our tradition are needed for Korean Theology, without which the Korean Christianity would be shamanized or, conversely, a destroyer of Korean culture.

The Bible is also a cultural product. The Bible is not only 'the' revelation of God, but 'a' revelation of God as long as God is biblically shown in the lights of judeo-christian world view. It is that there might be the biblical precomprehension. What does Korean Theology mean in the competitive situation between the biblical precomprehension and of the Korean people's one? Yes, Korean Theology is the problem of Korean culture's coping with judeo-christian tradition. Study on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wo traditions will reveal God more fully for our people's salvation by way of leading the way of saying something to say. Any way, even on that purpose, we should consider sincerely our traditional questions for salvation. Responding to those questions, the Bible comes to be our proper answer. The answer like that doesn't come necessarily in continuity with questions. But what is certain and clear is that theology cannot be korean theology until korean tradition including a certain precomprehension is considered as important vector of doing theology.